

광주시 시민 주도형 안전마을 조성 속도

광주시의 시민 주도형 안전마을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이 주체가 돼 삶의 질이 되는 마을부터 안전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2024년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안전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조사, 분석, 해결방안 모색, 개선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게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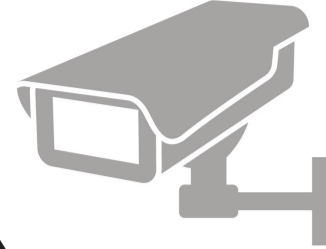
올해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산수2동 안전마을협의체 '함께 만들어요! 더(The) 안전한 호랑꼬두메 마을만들기' ▲양림동 주민협의체 '함께 만들어 가는 양림 안전마을 첫걸음!' ▲신용동 안전마을협의체 '신용동 안전마을 만들기 자율적 방범 모델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광주시는 3개 마을에 각각 18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경찰·소방·학교·의회·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마을 만들기 전문가팀(TF)'의 1대1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산수2동 안전마을협의체'는 자율방재단 등 11기관·단체가 참여해 안전마을 만들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호랑꼬두메마을에서는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리모컨 전등 설치'와 소방차 진입하기 힘든 골목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주민 스스로 마을 내 안전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또 경찰서·학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 사업도 진행했다.

'양림동 주민협의체'는 경찰·소방·학교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 합동 안전점검을 위한 '양림 안전점검의 날' 등을 운영 중이다. 이 마을에서는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말벗 & 반려식물 분양', 안전도움가게 지킴이 운영, 어르신·학생·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마을 조성

우리 동네 안전 주민 스스로 지킨다



산수2동, 골목길 화재예방 위해 '보이는 소화기' 배치 양림동, 양림골목비엔날레 기간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신용동, 반려견순찰대 야간순찰·전동킥보드 캠페인도

에 힘쓰고 있다. 11월 10일까지 열리는 양림골목비엔날레 기간에는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주민 삶 속에서도 안전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용동 안전마을협의체'는 지난 6월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민이 발골한 마을 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 주도의 촘촘한 마을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반려견순찰대 10개팀을 운영해 야간순찰을 하고 있으며, '지키고(go) 달려 안전 킵(keep) 보드'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 우

리동네 안전지도 제작,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투명명안 나눔캠페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올 연말까지 이들 3개 안전마을의 성과 보고회를 열고 우수 프로젝트가 인근 마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안전 주체의 노력에 따라 도시 안전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광주시, 31일까지...5개 자치구·화물협회 등 합동단속반 구성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 지역 등 대상...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

광주시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급증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개 자치구·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1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심야시간(밤 12-4시)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또는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밤샘주차 중점 단속지역은 자치구별로 ▲동구 학운IC 일대 ▲서구 양동교-양동센트럴뷰~농성광장 일대 ▲남구 동아여고-방림 광신프로그레스 일대 ▲북구 일곡동 북부순환로-삼각동 우치로 일대 ▲광산구 월계동 775-2 인근, 목련로382번길 일대 등 자치구별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지다.

단속반은 자치구별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지역 이외에도 광주·자치구에 제기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발생지역과 화물차 사고발생지역을 단속하고 사람 통행이 많은 주택가, 도로 갯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단속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고,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배상영 광주시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운전자들이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광주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최우수상'

현장 중심의 안전강화 활동 통한 중대재해 예방 돋보여

광주교통공사는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2024 광주광역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는 작업 현장에서의 위험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한 모범 사례를 공유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로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매년 실시한다.

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전 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124개 기관이

참여하는 1차 지역심사를 거쳐 제조·기타분야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작업자가 직접 작업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보완하는 안전파수꾼 제도와 외부 전문가와의 현장 합동 점검, 평가 결과 전 직원 공유 등 중대재해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건환경연, 14년 연속 대기분야 분석능력 '적합'

국립환경과학원 평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4년 대기분야 골목먼지 시료채취 숙련도 시험'에서 14년 연속 '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대기분야 골목먼지 시료채취 숙련도 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정 분석기관의 시험·검사 능력과 결과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숙련도 시험은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골목먼지에 대한 시료채취 시험·검사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안전장비, 채취장비, 누출확인시험, 시료채취과정, 결과산정 등 시료채취 전반에 관한

총 8개 분야를 종합 평가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골목먼지의 시료채취 8개 분야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우수한 측정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실시

광주시, 30일까지 일식·샐러드 등 조리·판매점 500곳 대상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등 확인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일식·샐러드·샌드위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5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4차 현장중심 기술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4년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 등에 대비한 조치다.

광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1명과 함께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조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등을 확인한다.

특히 세균오염도조사(ATP) 측정기를 활용해 종사자 손과 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전후 세균 수치

를 비교하고, 손씻기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에 대한 중요성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산가족정지를 활용해 기름의 산패도를 측정하고, 올바른 튀김용 유제 사용과 교체 시기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진행한 '위생관리 3차 현장중심 기술지원(컨설팅)'에서 배달음식점(김밥, 떡볶이 등) 483개소를 점검하고 미준수 업소 247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인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소비가 늘고 있는 배달음식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